



1964년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개봉 당시 여고생 단체 관람 모습.



차태현 주연의 영화 '헬로 고스트'를 위해 1970년대 풍경을 재현한 광주극장.



손그림 간판이 걸려있는 2015년 광주극장 현재 모습.

추억의 공간 넘어... 다시 비추는 그날의 '영화'

<榮華>

광주, 시간속을 걷다

<2>80살 광주극장

■ 전국 유일 단관극장의 현재와 미래

“앞으로 저에게 애니메이션을 배우는 이들은 이 관객 앞에, 이 극장에 한번 앉아 보기를 정말로 소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극장에 처음 앉았을 때 창작자로서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의자들이 모두 말해주더군요.”

영화관에 놓인 붉은 색 낡은 의자, 소박한 출입문, 단정하게 개겨진 담요 앞을 서서서는 관객의 모습... 이어지는 안재훈 감독의 코멘트는 인상적이었다. 세상에 이처럼 멋진 찬사를 받는 극장과 관객들이 있을까.

광주극장 80년 역사를 카메라에 담고 있는 필름 에이지 운수안 감독의 다큐 한대목은 광주극장이 갖고 있는 의미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1935년 10월 1일 문을 연 광주극장은 오랜 세월 동안 광주 문화 활동의 본거지였다. 영화 상영은 물론이고, 김구 선생의 시국 강연회, 국극단과 창극단의 공연, 연극·무용발표회, 유명 가수 리사이틀, 권투 시합까지 시민들에게 온갖 즐거움을 전한 문화 용광로였다.

올해 80주년을 맞는 광주극장은 단순히 오래된 추억과 기억만을 반추하는 공간을 넘어선다. '역사' 속으로 사라져 '기록'으로 남겨지지 않고 여전히 피가 돌고, 심장이 뛰고 온기가 느껴지는 '진행형'의 공간이다.

새해, 광주극장에는 세계적인 영화감독의 발길이 이어졌다. 베니스영화제 황금사자상 수상 감독인 대만의 차이밍량 감독과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자인 태국의 아피차푼 위라세타쿨 감독이다. 두 사람은 시간의 무게를 고스란히 견뎌낸 광주극장에 무한한 애정을 보였다. 차이밍량 감독은 오는 9월 개관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예술극장 개관 프로그램을 광주극장에서 진행한다. 아피차푼 감독은 영화관 구성구석을 카메라에 담았고, 자신의 트위터에 극장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시민 1000여명과 함께 영화를 관람한 '남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의 진모형 감독과 한경수 PD는 '광주극장, 고맙습니다'라는 사인을 남겼다.

멀티플렉스의 홍수 속에서 광주극장이 전국 유일의 단관극장으로 건재할 수 있었던 건 무엇보다 영화 프로그램의 힘이 크다. CGV 터미널에 무비 풀라주가 생기기 전에는 예술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일반 개봉작 뿐 아니라 다양한 영화제 역시 광주극장의 자랑이다. 지금까지 구로사와 아키라 영화제, 왕가위 영화제, 쿠바 영화제 등 수많은 영화제를 열었고 광주시내마테코와 광주시내마테코와 함께 하는 '영화 읽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올해도 '2014 다시 보는 한국영화', '프랑스 고전영화특별전'을 계획 중이다. 또 광주극장의 최전성기였던 1960년대 화제작과 함께 '저 하늘에 슬픔이' 등 한 국영상자료영상원이 디지털로 복원중인 1960~70년대 흥행작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획전도 준비하고 있다.

영화 관련 소모임도 인기다. 한 감독의 영화를 집중상영하는 '수요

영화클럽'은 128회를 넘어섰고, 고전 작품 위주로 감상하는 '토요일 영화클럽' 역시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전시, 콘서트 등 문화 전반으로 외연을 확장 중이다. 광주프랑스문화원과 함께하는 '음악으로 통(通)하다'는 대표 프로그램이며 광주비엔날레 전시장 역할도 했다. 또 자발적으로 전시를 정하는 이들도 많다. '관객과의 대화'도 자랑거리다. 멀티플렉스의 형식적인 행사와는 차원이 다르다. 극장을 찾은 관객들과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술 한 잔도 나눈다.

1년이면 130~150여편을 상영하는 광주극장의 평균 관객은 2만 5000명 수준이다. '위낭소리'가 대박을 터뜨렸던 2009년 단 한차례 3만 명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3만 3426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광주극장은 2002년 영화진흥위원회의 예술영화진흥사업자로 선정되면서 매해 지원을 받고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매년 평가에서 상위권을 차지, 지난해에는 인센티브를 포함, 6500만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올해는 영진위가 극장 상영작을 아예 선정하는 등 극장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는 쪽으로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항의, 전국의 예술영화진흥관들이 지원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어려운 한해가 예상된다.

광주극장은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덕에 1960~80년대 영화·드라마 촬영지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차태현 주연의 '헬로우 고스트'에서는 1970년대 풍경을 재현했고 타임워프를 소재로한 작품으로 2014년 최고 작품 중 하나였던 드라마 '나인', 이종석 박보영 주연의 '피끓는 청춘'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해에는 광택 감독이 김윤석·유재진과 함께 신작을 촬영했다.

몇년 전 세계 예술영화관을 순회하며 관련 글을 기고하는 프랑스인 언다 스크롤리안씨가 광주극장을 찾았다. 그녀는 "영혼이 따뜻한 극장"이라고 광주극장을 평했다. 무엇보다 관객과의 관계가 매우 돈독한 극장이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광주극장의 큰 힘은 바로 '관객'이다.

광주극장은 불편한 게 한 두가지가 아니다. 베고덕대는 의자는 깔 끔함과 거리가 멀다. 마땅한 휴게 공간도 없고, 불편한 화장실, 겨울의 추위까지. 그럼에도, 광주극장을 한번이라도 찾았던 이들은 다시 극장 문을 두드린다.

"광주극장이 늘 같은 자리에서 같은 모습으로, 같은 공기를 가지고 추억을 갈망하는 이들을 보며워져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7년동안 그대로 인듯 또 달라졌네요."

상영관 입구 벽면을 빼곡히 채운 관객들의 글 속에는 광주극장을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이 가득 담겼다.

광주극장 김형수 이사는 "80년 동안 광주극장의 필름이 돌아갈 수 있었던 건 저희보다 더 극장을 아끼고 사랑해준 관객 덕분"이라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영화의 집'으로 재탄생한 광주극장 안집은 1967년 지어졌다.

반세기 추억 품은 광주극장 사택 영화의 집으로 재탄생

광주극장 바로 뒤에 위치한 안집은 시간을 품고 있는 또 하나의 공간이다. 커다란 히말라야시가 십여년 마당을 안고 있는 사택은 지난 1967년 지어진 2층 양옥집으로 극장주와 영사기사 등 직원들이 머물던 장소였다.

수십년 동안 폐허처럼 버어 있던 이 곳은 지난해 3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되면서 최재영 교수 주도로 리모델링 작업을 마치고 '영화의 집'으로 탄생했다. 안집이 팔리거나 철거되지 않고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건 바로 광주극장이 건재했기 때문이었다.

영화의 집 1층은 다목적 홀, 사무실로 사용된다. 남고 베고덕대는 나무 계단을 올라 가면 만날 수 있는 2층은 원형대로 보존해 상설전시 및 감독과 배우 휴식처 등으로 활용한다. 무엇보다 안집 마당에 서면 붉은 벽돌이 인상적인 극장 건물 측면을 볼 수 있어 흥미롭다. 최근 극장을 찾은 차이밍량과 아피차푼 위라세타쿨 감독의 사인도 여긴 숨어 있다.

극장측은 '수요클럽' 등 기존 프로그램과 함께 '영화의 집'에서 시작해 간판실 등 영화관 구성구석을 둘러볼 수 있는 투어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5일 오후 4시 열리는 개관식에서는 운수안 감독의 다큐 등이 공개되며 7일에는 영화 '피티 51' 상영 후 영화 속 주인공들이 회기동 단편선 등이 출연하는 공연이 열린다. 정식 개관은 오는 9일로 광주극장의 역사를 알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극장전' 행사를 갖는다. 문의 062-224-585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세계적 영화감독 발길 줄이듯
문화전당 개관 프로그램 진행
글로벌 예술 거점 도약 기회

전시·콘서트 문화전반 외연 확대
다양한 영화 상영·영화제...
관객의 힘으로 새 역사 발걸음



광주극장의 내부 모습.



극장 입구 벽면을 빼곡히 채운 관객들의 글.

2014년 12월 15일 ~ 2015년 3월 15일 제주도여행 폭탄세일

나는 제주여행을 (2박3일) ₩109,000원에 갈다~

선박(씨스타크루즈) 08:50 목포항출발 ₩109,000원 ~ 항공(아시아나) 15:40 광주공항출발 ₩189,000원 ~

1일째 선박 08:00 목포항집결 13:30 제주도착직원미팅 항공 14:30 광주공항집결 16:20 제주공항도착직원미팅 - 수목원테마파크-아이스뮤지엄-트리아트 - HOTEL : 일반호텔(4~6인실) - 중식 : 자유식 - 석식 : 호텔식	2일째 - 조식후-아침이 이쁜순일바다~외돌개 올레6,7코스트레킹 - 석부적테마농원-감귤따기체험-중문모구~별내천천양대, 천연난대림지대 - 중식후-카멜리아 힐-겨울의꽃 동백동산 - 서커스월드or코끼리쇼(현지직필) - HOTEL : 일반호텔(4~6인실) - 중식 : 호텔식 - 석식 : 호텔식
3일째 선박 16:00 제주항도착 17:00 출발 항공 18:00 제주공항도착 19:35 출발 - 조식후-민공예전시장-조랑말체험 - 제주성음민속보전마을체험-중식-광치기해안-제주의오름을 한눈에볼수있는 드라이브수상산간도로 - 에코랜드-기차타고꽃자랑(자연전시관)술지대관광 - 중, 수산물직매장 - 해녀촌 - 몽골리안 마상쇼(현지직필) - 제주에볼수있는 드라이브수상산간도로 - 해녀촌	1박2일 1일째 ▶ 광주역 08:00 출발 - 남이섬 - 강원도 화천군 숙박 2일째 ▶ 조식후 - 신천어 축제장 - 15:00 출발 - 광주 포함사항 : 전용버스, 입장료, 주차비, 조식, 중식(상등권), 여행자보험 회 비 : 주중 ₩89,000원 주말(금, 토, 일) ₩99,000원 1박2일 1일째 ▶ 광주역 08:00 출발 - 남이섬 - 강원도 화천군 숙박 2일째 ▶ 조식후 - 신천어 축제장 - 15:00 출발 - 광주 포함사항 : 전용버스, 전일정 입장료, 숙박(모텔 4인실), 주차비, 식사(중식2회, 석식1회, 조식1회), 여행자 보험 회 비 : 주중 ₩169,000원 주말(금, 토, 일) ₩189,000원 * 20명이상승용가능 ** 예약담당문의 H.P : 010-3999-3226

※ 참가인원 20명 미만은 별도 보충 가능합니다. ※ 본상품은 수송비가 포함됩니다. * 2인실 : 1박당 30,000원 추가 * 산악회 별도 문의

2015년 겨울방학특선 강원도 화천군 산천어축제

기간 | 2015년 1월 10일(토) ~ 2월 1일(일)까지 무박2일, 1박2일
 장소 | 강원도 화천군 산천어 축제장 회원님들모십니다

무박2일
 출발지 : 광주역 23:00 집결, 23:30 출발
 포함사항 : 전용버스, 입장료, 주차비, 조식, 중식(상등권), 여행자보험
 회 비 : 주중 ₩89,000원 주말(금, 토, 일) ₩99,000원

1박2일
 1일째 ▶ 광주역 08:00 출발 - 남이섬 - 강원도 화천군 숙박
 2일째 ▶ 조식후 - 신천어 축제장 - 15:00 출발 - 광주
 포함사항 : 전용버스, 전일정 입장료, 숙박(모텔 4인실), 주차비, 식사(중식2회, 석식1회, 조식1회), 여행자 보험
 회 비 : 주중 ₩169,000원 주말(금, 토, 일) ₩189,000원
 * 20명이상승용가능 ** 예약담당문의 H.P : 010-3999-3226

황제 산악회 매일 첫째주 화요일 07:30, 광주역 08:00, 문예회관 08:30 출발합니다.
 홍보의사 : 문병구 H.P 010-3999-3226

※ 문의처 | 해외, 국내, 섬투어 전문여행사 **황제관광여행사** 광주광역시 북구 효신로 5 ☎ 062)267-8580 ★ 담당자 | 문병구 H.P 010-3999-3226 FAX 062-267-8581